

# 만남

2016 4월  
통권 135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 워져 있었다.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도움을 구하는 아침기도(시편 5,3-9) ——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32~134 -----	9
기도 소개	결정짓기 전 기도 _____	15
찬 양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	16
공동체 소식	_____	17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3
미사안내	_____	24

### 《교황님의 4월 기도지향》

#### ❖ 일반 지향 - 가난한 농민들

가난한 농민들이 그들의 값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 ❖ 선교 지향 -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종교적 분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언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알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하시는 일에 축복하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을 무덤 속에 가두어두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야 합니다.

그 큰 돌을 굴러내지 못하면 당신은 무덤 안에서 썩게 됩니다.

당신을 어둡고 습기 찬 무덤 속에 감금하려는 돌은 탐욕(貪慾)의 돌입니다.

재욕(財慾), 권력욕(權力慾), 애욕(愛慾)의 돌을 굴러내지 못하면 당신은 무덤 속에서 썩게 됩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 속에서 썩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입구를 막고 있는 욕망의 돌을 치우십시오.

시기질투의 돌, 미움과 증오의 돌, 원한과 원망의 돌, 양갈음의 돌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리석음(痴岩)의 돌은 당신을 눈멀게 합니다.

치암(痴岩)은 진리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의 길을 발견했다하더라도 어리석음에 짓눌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두운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돌은 나(妄我)라는 돌입니다. 끝까지 나를 짓누르는 돌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탐욕(貪慾)의 돌, 치암(痴岩)은 물론 나(妄我)의 돌까지 모두 치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십시오.

그리고 환하고 밝은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 ❖ 도움을 구하는 아침기도(시편 5,3-9)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장 “찬미의 기도” 1,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오늘 하루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주님을 찬미하는 이 시간 함께 해 주소서.

###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5장 3절에서 9절 까지를 읽어주십시오.

5, 3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4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 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뜻이 기다립니다.

5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6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미워하시고

7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피에 주린 자와 사기 치는 자를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 8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자애에 힘입어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 9 주님, 저의 원수들 때문이니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제 앞에 당신의 길을 바르게 놓아 주소서.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아침 첫 시간을 기도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시작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했을 때 변화된 삶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새벽기도> Fr. 임언기

천지창조도 한 처음 새벽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새벽에  
광야에서 떨어진 만나도 새벽에  
예리코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새벽이다.

마르코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먼동이 트기 전에 외딴 곳에서 새벽기도를 바쳤다. 광야 40년은 이집트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가나안복지로 건너가는 과정의 삶이다. 그것은 신약의 우리가 세례받기 전 죄와 어둠, 저주와 죽음, 사탄의 노예생활에서 은총과 빛, 축복과 생명, 천사의 칭송을 받는 천국의 삶으로 건너가는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의미한다.

이 광야의 생활에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무려 40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훈련시킨다.

탈출기 16장 21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해가 뜨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하루의 양식을 수거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한다고 가르친다.

시간은 수명, 곧 자신의 생명이다.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깨끗한 시간을 시간의 주재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만물로 봉헌했을 때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저녁에 술 마시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리고 TV조배, PC조배 실컷 하다가 남는 여분의 시간을 마지못해 하느님께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느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하느님 중심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하느님 중심으로 시작하면 하는 일 마다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하느님께서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하느님 중심의 삶을 새벽 기도로 시작할 때, 그 믿음과 정성을 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 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투이 기다립니다.“(시편5장4절)

####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장 “찬미의 기도” 2,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교리132

**준주성범****제 1 권****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제1장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음**

1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 (요한 8,12)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닫고 마음의 눈이 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2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초월하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춘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숨어 있는 만나를 맛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복음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감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에 맞들려면 자신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

3 삼위일체에 관한 고상한 교리를 가르치더라도 겸손 하지 않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거스른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웅변으로 성인이나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덕을 가꾸며 살아야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 통회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통회하는 정신을 갖기를 바란다. 네가 성경을 다 알고 모든 철학자의 이론을 다 안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코헬 1,2) 현세를 경계하며 하느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지혜다.

4 그러므로 소멸하고야 말 재물을 찾으며 그 재물에 희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 존경받기를 갈구하거나 높은 지위를 꾀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후에

큰 벌을 받을 육신의 욕구를 좇는 것도 헛된 일이다. 오래 살기만 원하고 착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이다. 현세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장차 올 후세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이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도 헛된 일이다.

5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코헬 1,8)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이 세상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도 무형한 것을 찾아 나서기 위해 힘써라.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양심을 더럽히고 하느님의 은총을 잃게 된다.

교리133

## 제2장 자신을 겸손히 낮춤

1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와 달과 별이 도는 길을 익히며 연구하는 교만한 학자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촌백성이 분명히 더 낫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사람이 하는 칭찬을 즐기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행실을 보고 심판하실 하느님 대전에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2 너무 지나치게 알려 하지 마라. 바로 거기서 수없이 많은 분심거리가 생기고 수없이 많이 속게 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유식하게 보이려 하고 지혜롭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함을 주지 못하며, 때로는 해롭기 까지 하다.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제쳐 놓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하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작 영혼에 만족을 주는 말은 없다. 착한 행실이야말로 정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져다준다.

3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수록 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습득한 지식을 두려워하라. 네가 스스로 많이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잘 이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로마 11,20 참조) 차라리 네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라. 너보다 박학하고, 너보다 법에 익숙한 사람이 많은데 어찌 네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유익함을 알고 배우고자 한다면 남이 너를 몰라주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해야 한다.

4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지식은 자신을 참되게 알고 자신을 낮추는데 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좋고 고상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곧 지혜며 완덕이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네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의 착한 처지에 얼마동안이나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그러나 너보다 더 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교리134

### 제3장 진리의 길을 따름

1 사라지는 형상이나 현란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 배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이 만든 이론과 주장은 우리를 속이기 마련이고, 우리가 보는 것 역시 모든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분명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수많은 말로 논증하는 것이 네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이론을 몰랐다고 해서 심판 때에 책망을 받을 리는 결코 없다. 유익하고 요긴한 것은 소홀히 대하고, 호기심으로 무익한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는가? 그것은 마치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2 만물의 유와 종별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영원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 1,1-4) 누구도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한다. 모든 것을 이 말씀 하나로 생각하고, 이 말씀 하나로 향하고, 이 말씀하나를 통해서만 보는 사람은 마음이 동요하지도 않으며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평화로울 수 있다. 오, 진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애덕으로 저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는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이 싶습니다. 제가 찾고 원하는 것은 모두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 대전에는 모든 학자가 침묵할 것이며 우주의 만물이 잠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만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3 누구든지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단순하게 할수록 그만큼 힘들이지 않고 많은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총명의 빛을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정결하고 순직하고 항구하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는데,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행할 뿐, 자신을 위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네 마음에 있는 절제되지 않는 욕망보다 너를 방해하고 성가시게 구는 것이 또 있겠는가? 착하고 신심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행할 일을 마음속으로 먼저 계산한다.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욕으로 기울어지려는 욕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른 이성의 명령을 따른다.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보다 더 맹렬한 싸움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선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써야 한다.

4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덕에는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는 얼마간의 애매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너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것이 하느님께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그렇지만 학문 자체를 탓하는 것도, 사물에 대한 연구와 지식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학문 자체는 좋은 것이며 실제로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학문을 연구하기보다 양심에 따라 착하게 생활하고 덕을 닦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 훌륭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착하게 살기보다도 지식을 쌓으려고만 힘쓰다 보니 자주 일을 그르치

거나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 혹 결실이 있다 해도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사람들이 허황된 일에 기울이는 그 열정을 자신들의 악습을 뿌리 뽑고 덕행을 닦는 데 썼다면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비참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심판 날에 심문당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때에는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물을 것이다.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살아 있을 때 박학함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자리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으며, 그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위대한 것처럼 우러러보더니, 지금 와서는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

6 오, 세상의 영화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하느님을 향한 생활에 열정을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랬다면 참 진리를 공부했을 것이요, 참 진리를 찾았을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학문 때문에 망하는지 보아라.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겸손하게 살려 하지 않고, 다만 훌륭한 사람으로 돋보이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만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애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작게 보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영예를 덧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필리 3,8) 여기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유식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성스러운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 제4장 슬기롭게 행동함

1 무슨 말이든지 다 믿을 것도 아니요, 마음속에서 무슨 충동이 생겼다고 즉시 그대로 할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여 매사를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남을 착하다고 하기보다 그르다고

믿고 말하기가 일쑤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 그러나 완덕에 이른 사람은 남의 말을 쉽사리 믿지 않는데, 그는 사람들이 연약하여 악으로 잘 기울어지고, 말실수도 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히 굴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여 내세우지 않는 것은 큰 지혜다. 다른 이의 말을 분별없이 믿지 않고, 들은 말이나 자기가 믿는 것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을 큰 지혜다. 지혜롭고 또 양심이 바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여라. 너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도록 힘써라. 착하게 살아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생각할수록, 또 하느님께 더 잘 순종할수록 모든 일에서 지혜로워질 것이며 평화롭게 살 것이다.

비안네 신부

## 결정짓기 전 기도

주님, 저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당신의 지혜를 구하오니,  
이제와 영원히 저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선택이 되게 해 주소서.

“구하면 얻을 것” 이라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  
하셨사오니,  
사랑하옵 주님, 저는 주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은총과 지혜를 청하옵니  
다.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느님 편에서 볼 때에 그의 구원에  
좋지 않은 것이 종종 있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 자신의 소망보다는 차원 높기 때문이나이다. 오, 지혜이신 하느님,  
제가 주님의 방법을 항상 명백히 알지 못하옵고, 또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할 때에는, 적어도  
주님께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만사를 주님께 의탁하여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바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  
소서. 이런 방법으로 저는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유익하게 사용코자  
하나이다.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 사랑의 불을 그들에게 놓으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하느님,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참 지혜를 얻게 하시며, 결정한 것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미리 맛보게 하소서. 아멘.



# 179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현정수 신부

G C D G

영 원도 하시 - 어 - - 라 그 - 사 랑 사랑이 여

G Am D G D7

감 사하며노 - 래 - 해 그 줄으 신우리주-님을찬 미 하 네

G C D G *Fine*

영 원도 - 하시 - 어 - 라 그 - 사 랑 사랑이여 -

Am D Bm Em

1. 감사하-며노-래 - 해 그 줄으 신우리주-님그-분 - 은 -  
2. 집을짓-는자-들 - 이 내 버렸 던그들주-님손-에 - 서 -

Am D G E

영 - 원도 - 하시어 - 라 그 분 사 랑 주 안 에  
모 - 통이 - 의머릿 - 돌 되 었 도 다 주 님 께

Am D Bm Em

서 피신함- 이 낫도 - 다 사 랑 들 을 믿기보- 다 낫도 - 다 그 사 랑  
서 이 루신- 일 이 기 - 에 놀 략 게 만 우리겐- 보이도 - 다 그 크신

D/C C Cm<sup>6</sup> Cm G Am D7 *D.S.*

영 원 그 사 랑 영 원 하 기 - - 에 -  
사 랑 그 크신 사 랑 놀 략 도 - 다 -

❖ 4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아 (St. Julia)	김성은	24일	보나 (St. Bona)	이보나
11일	젬마	이수빈	25일	마르꼬 (St. Mark)	김희진 강석진
13일	마르띠노	김성일			
15일	아나스타시아	박지훈			
16일	베르나데타 (St. Bernadet)	김(강)신자 최성자 오옥수	29일	카타리나 (St. Catherine)	이화자 정혜경 김희진 김수혜
				카롤리나	김계희
			30일	소피아 (St. Sophia)	김주현 이명희

❖ 4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안나	송윤아(H)	30일	비오	이제명(O)
11일	젬마 갈가니	이혜경(H)			
21일	안셀모	이철민(H)			
29일	카타리나 (St. Catharina)	박진경(H) 고희경(B)		소피아 (St. Sophia)	박영희(B)

❖ 4월 미사 전례 봉사자 ❖

4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봉사
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2구역
10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영희(세실리아) 허영란(엘리자벳)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주일학교 복사단	3구역
17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박귀동(토마)	허선애(임마누엘라)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4구역
2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스) 이명자(가밀라)	최장용(레오) 곽케빈(요셉)	청년회

❖ 4월 성가번호

4월	입 당	봉 헌	마 침
3일	135	512	129
10일	138	211	137
17일	130	216	132
24일	131	219	136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4월 17일	☞현 윤건(토마스)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월 20일	☞이 계순(아가다)	
4월 24일	☞김 인숙(헬레나)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2월 28일	3월 6일	3월 13일	3월 20일	2차헌금
계(€)	236	194.6	177.10	243.5	130.9

❖ 자진헌납금 ❖

2016년 2.22 - 2016년 3.20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김기연, 김형웅, 이수웅, 권지연, 배성우,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한선지, 이현묵,  
이정수, 현영애, 손수희, 이공종, 육종인, 박성아, 진윤희, 최장용, 강순행, 정정숙,  
강신행, 이영희, 오세숙

구좌입금 :

강일남, 최화영, 홍경영, 남궁춘배, 김대현, 김원자, 김수혜, 백정선, 최현봉, 김치수,  
허두욱, 서유미, 허길조, 곽케빈, 이성원, 이상봉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대한민국 선거 기간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3. 복음 나누기 기도회는 4월 8일(금요일) 16:30분입니다.
4. 2구역 소공동체는 4월 15일(금요일)입니다.
5. 4월 17일은 성소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등 사제, 수도자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좋은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6. 4월 27일(수) - 30일(토)는 사목 관계자 회의와 여성 꾸르실료 기간입니다. 주임 신부님의 출장으로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방조 쟈마 자매님께서 꾸르실료 교육에 참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브레멘 공동체 식구들은 3월 12일 Visbek Haus Marienstein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 후 정 아가타 자매님 댁에서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3. 3월 정기미사는 교환사목 신부님이신 최용준 안토니오 Frankfurt 본당 신부님께서 집전 하셨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공 석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6 2491 007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 4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
1	금	부활 팔일 축제 내 금요일 순교자 윤봉문 요셉 치명일(1888년)		
2	토	부활 팔일 축제 내 토요일	어르신 합창단 단합회	브레멘 공동체
3	일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주일)	사목협의회	
4	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청명		
5	화	한식·식목일		
6	수			
7	목	성 요한 바티스타 드 라 살 사제 기념일		
8	금		복음 나누기 기도회	16:30
9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0	일	부활 제3주일	청년 소공동체	
11	월	성 스타니슬라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12	화			
13	수			
14	목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5	금		2구역 소공동체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18	월			
19	화			
20	수	장애인의 날·곡우		
21	목		연령회	
22	금			
23	토			
24	일	부활 제5주일		
25	월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26	화			
27	수		사목 관계자 회의 - Marienhof 17:00	주임 신부님, 회장님 출장 평일 미사 없음
28	목		꾸르실료 방조 켄마 자매님 참석	
29	금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30	토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